

당신(나)과 나(당신)의 대화. 정현두

A: 내가 당신을 따라 그린 그림과 진짜 당신의 그림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B: 솔직히 말하면 그 그림이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당신은 내가 자주 쓰는 색을 참고했어요. 여러 기법을 연습하고 활용했죠. 저런 요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마치 내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이긴 해요. 사람들은 저런 요소들을 보고 '나'의 그림이라고 구별할 테니까요. 하지만 정작 내가 추구하는 만큼의 예민함과 혼란스러운 감각에 도달하진 못했어요. 당신이 그린 그림은 나의 진짜 그림보다 정적이고 정리되어 보여요.

A: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시겠지만, 나 역시도 당신이 따라 그린 나의 그림이 나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감의 농도나 붓질의 속도, 색깔 등 말로 잘 설명하긴 어렵지만, 어딘가 달라요.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과장 자체가 다르다고 할까요.

B: 맞아요. 당신을 따라 하기 위해 물감을 칠하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직감했어요. 붓이나 기름의 양을 조절해 봐도 여전히 미묘하게 달랐죠. 심지어 당신의 그림에서 보이는 색을 그대로 쓰더라도 전혀 다른 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A: 나도 비슷한 점을 느꼈어요. 당신과 같은 색을 써도 당신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더라고요. 색에 대해서는 나도 이번 스터디를 통해 새롭게 깨달았어요. 색이 같아도 붓질과 물감의 농도, 화면 내의 배치 등으로 이렇게나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어요. 우리는 매번 다른 색을 쓰지만 그림의 느낌은 항상 비슷하잖아요.

B: 가장 닮기 어려운 점은 그림을 그려내는 과정이죠. 당신이 그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왜 저기를 저렇게 칠할까' 수없이 생각해봤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난 저 부분이 좋아 보이는데 왜 저렇게 하지 않는지, 저기에 왜 저 색을 사용할 생각을 하는지 고민할수록 점점 더 모르겠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작업을 만들어내는 내적인 판단은 절대로 같아질 수 없다고 느꼈어요.

A: 당신의 그림을 조금은 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그림을 따라 그리기 위해 몇몇 기법을 연습하고, 그림의 일부를 모사하거나 창작을 해왔죠. 재밌는 건 그럴 때마다 내가 잘 따라 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따라 하면서 실력이 더 늘고 나니 이전 그림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곤 했죠.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역시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연습하고 당신을 이해한다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아마 지금 당신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더 연습하고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을 완전히 이해하고 흉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B: 말씀대로 이전보다 많이 비슷해졌어요. 하지만 내 눈엔 여전히 색이나 기법이 비슷할 뿐 저 그림이 추구하는 방향은 많이 다르다고 느껴요. 당신이 말했듯 그냥 뭔가 다른 거죠.

A: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작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미숙하게 따라 그린 그림들은 우리의 진짜 그림과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야 저 그림을 직접 그리는 사람으로서 더 민감할 수 있겠지만, 그 차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볼까요. 만약 열심히 보더라도 다른 점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래 다른 건 알겠어, 그래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물론 나는 회화에서의 의미는 그림의 표현 자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엇을 그렸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그렸는지' 자체가 회화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그림과 서로를 모사한 그림의 차이는 곧 회화적 의미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B: 그렇지만 만약 정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야기는 의미가 있을까요? 가령 당신은 그림을 그리며 느꼈던 감각을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감각은 지금 당신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그림에선 느낄 수 없죠.

A: 예전에는 그리면서 생각했던 걸 이해받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전달될 수 없는 종류의 언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회화에 대해 이미 정의된 이론이 있고, 나의 그림을 그 이론에 빗대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내가 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종류의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 회화는 1인칭 매체로서, 주관적인 판단이 없다면 존재할 수조차 없어요. 그 생각들로 인해 작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말은 작업 태도 자체인 셈이죠.

B: 그렇네요. 당신은 작업을 하며 내적으로 일어났던 생각-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무척 중요하겠지만 나에게겐 표면에서 드러나는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난 과정이 아닌 표면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나의 그림은 멀리서 봤을 때는 터치가 중첩되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실제로 중첩된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한 겹으로 이루어진 얇은 막이고 그 점을 오히려 드러내려 하고 있죠. 이로서 그려낸 순서를 추측하기 어려워요. 붓질을 중첩하며 순서를 드러내는 당신과 차이가 있죠. 작업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려는 편이에요. 당신처럼 그림을 그릴 때 떠올렸다가 사라져버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A: 맞아요. 나는 나의 작업의 과정을 떠올리며 바라봅니다.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지만 지금의 작업을 과거에서 현재로 변해온 과정 안에서 바라봐요. 예를 들어, 내가 더 이상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붓질만 사용하게 된 이유는 지금도 작업 아래 있는 거지요. 나의 초기작은 상상의 풍경화였어요. 그러다가 점차 실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재현하거나 이미 공식화된 기호를 표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나의 회화적 충동이 그저 풍경의 시각정보가 아니라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각이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점차 사실적 표현이 사라지고,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신체적인 붓질로 채워진 지금 더 이상 풍경화라고 할 수만은 없지요. 하지만 저 그림을 상상의 풍경화처럼 그렸고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붓질들은 저기에 뭐가 있는 것만 같다고 상상하며 칠한 흔적이자 생각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화면은 마치 내 앞의 벽처럼 서있어요. 그 벽은 새로운 의미를 전하는 인물처럼 나와 마주보죠.

B: 그런 의미라면 당연히 나의 지난 작업 또한 현재의 작업과 연관이 있어요. 난 내가 바라본 세계를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세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한 화면에 모두 그린다면 그것이 조금은 표현되지 않을까 기대했었죠. 실제로 그 당시의 그림들은 내가 경험하거나 생각한 것들을 닮아있어요. 내가 본 세계는 기묘하고 모순적인 상황들이 충돌하고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기묘한 세계를 표현하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시각적인 자극을 일으키고 싶어 해요. 그 자극은 언어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감각적인, 내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인지를 포함하는 거죠.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나의 작업도 확장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